기고

박 온 유 순천경찰서 경무계 경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데 썩은 동아줄! 사기범죄 알아도 조심하자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침체된 경제를 마주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19 정부지원 긴급대출'을 빙자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가 발생해 출동해보면 십중팔구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뭐에 홀렸었나봐요."라고 말하는 신고자가 대다수이며 모두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지만 급한 돈이 필요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알고 있었지만 아차 하면 당할 수 있는 사기들! 다시 한번 새겨보자

1. 대면 편취

대면편취는 주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현금을 마련해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사기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을 겪거나 목격한다면 112에 신고하자.

2. 고액 알바취업 사기

고액알바를 빙자해 통장을 대여하거나, 수금의 명목으로 돈을 대신 받아오거나 인출해 올 것을 요구하는 고액알바의 경우 주의하자.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통장을 대여 또는 현금을 전달해 준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이되거나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3. 구글기프트 구매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와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문자나라로 연락 중이야"로 시작하는 말을 하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구글기프트'를 대신 사줄 수 있냐는 말을 한다면 절대 대응 하지 말아야 한다. 100% 보이스피싱이다.

4. 물품거래 사기

코로나 대면이 어려운 요즘, 중고** 또는 당근**으로 거래하며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거래의 경우 '경찰사이버수사국' 또는 '더치트'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를 조회함으로써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내가 모르고 있던 사기 수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대부분은 알고 있는 수법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심과 빨리 돈을 마련하려는 조급함이 더해 사기범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2. 1~6. 30. 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사기범죄 피해가 매년 증가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앞장설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져 있는 요즘이지만, 마음만큼은 한마음으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공유해 사기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칸막이 범죄예방 차원 빈틈 메우는건 어떨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관리되고 있는 일반 가정집과 달리 도심 유흥가 PC방이나 호프집 등 일부 업소 중에는 손님 편의를 위한 화장실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내외부에 설치된 남녀 공용 화장실 구조는 대개 좌변기와 소변기 몇 개를 같이 설치해두고 남녀 구분없이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듯 일부 업소 외부에 설치된 그것도 남녀공용 화장실 때문에 이른바 몰카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운데다 밤늦은 시각 업소를 이용하는 일부 여성들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면부지의 남성과 함께 밀폐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다는 자체가 민망하거니와 각종 범죄에 자칫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해당 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나 한두번 업소를 찾았더라도 한번쯤 화장실을 이용해본 사람은 업소 화장실의 배치구조를 훤히 알게 되고 성범죄 등 범죄 전력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볼 경우 어떠한 범죄든지 발생 가능한곳이 공동화장실이 아닐까 한다.

요즘은 다행히 대형 상가나 공공시설물에 달린 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소규모 개인건물 화장실은 건물면적이나 구조상 별도로 남녀 구분 화장실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 건립 당시 지어진 형태로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만큼 위험한 공간으로 방치되게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틈을 메우는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좌우 칸막이 위 아래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에 몰래 카메라가 들어올 공간 자체를 아예 막아 나선 것이다.

그 동안 몰카범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공중화장실 옆 칸막이 빈공간이 있다는 점을 노려 화장실 옆칸에서 대변기르 밟고 올라가 위에서 촬영하거나 밑 공간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잇따랐다.

오죽하면 이러한 조례까지 나왔나 한편으론 서글픈 마음마저 든다.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부득이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할때는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단 공용 화장실 내부에 들어갔을경우에는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업주 나 건물주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배려 차원에서 남녀공용화장실의 칸막이 틈을 메우거나 남녀 이용자 분리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화장실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녀공용화장실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어선 곤란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